



최남선의 국토예찬

『심춘순례』는 육당 최남선이 쓴 우리 국토에 대한 신어(新語)인 시(詩)이다. 육당은 석전(石泉) 박한영과 함께 1925년 3월 2

8일부터 50여일간 호남과 지리산 일대를 여행하면서 한도인(韓道人)이라는 필명으로 『시대일보』에 그 순례기를 연재했고, 1년 후 전반부의 기록을 모아 책으로 펴냈다. 오세창의 제자와 고회동의 표지삽화, 정인보의 표제지가 실릴 만큼 이 책은 당시 최고 지식인들의 관심과 사랑을 독과점되었다. 그것은 『심춘순례』가 단순한 기행문이 아닌, 일제에 빼앗긴 국토를 돌아보고, 잃어버린 조국의 문화를 되찾고, 민족의 단결을 촉구하는 문헌이기 때문이다.

『심춘순례』는 1926년 1월 10일 『시대일보』에 연재된 이후, 1927년 1월 10일 『시대일보』에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글 하나하나가 그림을 보듯이 생생한데다, 육당(陸堂) 최남선의 문체와 문장력이 돋보인다. 그는 대부분의 여정을 걸었다 했고, 높은 산도 거침없이 넘었다. 『심춘순례』는 『심춘순례』의 문체와 문장력이 돋보인다. 그는 대부분의 여정을 걸었다 했고, 높은 산도 거침없이 넘었다. 『심춘순례』는 『심춘순례』의 문체와 문장력이 돋보인다. 그는 대부분의 여정을 걸었다 했고, 높은 산도 거침없이 넘었다.

쉽게 풀어 쓴



尋春巡禮

심춘순례

조선의 국토는 산하 그대로 조선의 역사며 철학이며 시며 정신입니다. 문자 아닌 채 가장 명료하고, 정확하고, 또 재미있는 기록입니다. 조선인의 마음의 그림자와 생활의 자취는 고스란히 똑똑히 이 국토의 위에 박혀있어, 어떠한 풍우라도 마멸시키지 못하는 것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조선 국토에 대한 나의 신앙은 일종의 애니미즘(animism)지도 모릅니다.

최남선 지음 · 김대환의 엮음



내가 보는 그는 분명히 감정이 있고, 웃는 얼굴로 말하며 나를 대합니다. 이르는 곳마다 끝없는 속살거림과 은근한 이야기와 느긋한 호소연을 들읍시다. 그럴 때마다 나의 심장은 최고조의 출렁거림을 일으키고, 실신할 지경까지 들어가기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최남선의 국토예찬 

쉽게 풀어쓴

심춘순례

1쇄인쇄 2014년 5월 2일

1쇄발행 2014년 5월 6일

지은이 최남선

역은이 심춘독회

발행인 서정환

펴낸곳 신아출판사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공북 1길 16(태평동 151-30)

전화 (063) 275-4000 · 0484 · 6374

팩스 (063) 274-3131

이메일 shina2347@naver.com sina321@hanmail.net

출판등록 제465-1984-000004호

인쇄·제본 신아출판사

이 책에 게재된 글과 사진을 인용하거나 발췌하는 것을 금합니다.

저자와 협의, 인지는 생략합니다.

잘못된 책은 바꿔 드립니다.

ISBN 979-11-5605-076-6 03980

값 20,000원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CIP제어번호: CIP2014014019)

Printed in KOREA

책
을
엮
으
며
·
손
상
국

저
자
서
문
·
백
운
향
도

01	백제의 옛 땅으로	12
02	모악산에 오르다	27
03	삼층 법당의 금산사	33
04	최치원의 태산유적	54
05	노령을 넘으며	61
06	황매화 피는 백양사	67
07	물외암으로 약사암으로	78
08	경담선사의 운문암	86
09	이백 년 선불장이던 구암사	91
10	유군치 넘어 내장산	98
11	삼신산을 끼고	107
12	변산의 4대 사찰	115
13	낙조의 월명암	128
14	거룻배로 고부만을 횡단하다	136
15	선운사와 도솔산	141
16	병바위를 지나고 고창을 지나	163
17	돌짐대 찾아서 담양으로	171

<u>18</u>	김덕령 장군의 고향	178
<u>19</u>	성스러운 무등산 순례	188
<u>20</u>	무등산 정상에 올라	205
<u>21</u>	다시 무등산을 횡단하다	210
<u>22</u>	조화의 절창인 적벽가	222
<u>23</u>	모후산 유마사	236
<u>24</u>	조선불교의 완성지 송광사	244
<u>25</u>	의천속장경의 새로운 발견	264
<u>26</u>	방장 삼천 칸	276
<u>27</u>	송광사의 암자	286
<u>28</u>	장군봉 넘어 조계수 건너	303
<u>29</u>	교학의 연충인 선암사	315
<u>30</u>	조계산 비로봉에 오르다	337
<u>31</u>	황량한 대각국사의 유적	345
<u>32</u>	해동 선풍의 선양지 태안사	352
<u>33</u>	섬진강을 끼고 지리산으로	369

참고자료 | 1. 시대일보 제호와 『심춘순례』 연재 기사

2. 『심춘순례』 표지와 간기
3. 『심춘순례』 여행길 및 지도



것 없이 끊이지 않았던 민중 신앙의 대상이었던 것일지니, 여기에 대한 꿈쩍 못할 증거는 비교적 험악한 이 산꼭대기에 지금까지 이 지방의 중심적 신당이 있음이다. 옛날 천군天君⁴⁵부터의 전통을 가진 것이, 이 신당으로 하여금 아직까지 험해도 오랜 터를 떠나지 않게 하는 까닭일 것이다. 한벽당의 이름도 그 계기揭記에 쓴 것처럼 '벽산한류碧山寒流'⁴⁶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대개는 옛날 제단이던 유의遺意⁴⁷를 받은 것으로 벽당碧堂 두 자가 그 안목일 것이다.

이름만 거룩한 옥류동玉流洞이란 데를 거쳐서 가련산 너머로 기울어가는 석양을 보며 돌아왔다.

 3월 30일

저녁 동안 야단스럽던 날씨도 자고 나니 깨끗하여, 아침 해에 싸인 전주 시가에는 기쁨의 물결이 출렁거릴 뿐이다. 날이 밝자마자 불공에 들어서 끝나기를 기다릴 수 없으므로 김 주지에게는 치사한마디도 못하고 총총히 나섰다. 서북 터진 쪽으로부터 쉼 새 없이 불어오는 찬바람은 거의 불을 에어갈 듯하여, 봄은 천리만리 달아난 듯하다. 장날이라 하여 짐을 진 사람, 머리에 이고 오는 사람, 수레를 끄는 사람, 우마를 몰고 오는 사람이 꾸역꾸역 모여드는 남문 거리를 지나, 전주교를 건너 완산 곁으로 순천통로順天通路를 남하한다.

돌아다보니 전주부 치소의 성립이 발산을 근거로 하였음은 더욱 명료하고, 또 이 사방에서 가장 큰 이 산이 당연히 부의 진산일 수밖에 없음도 도무지 의심 없다. 전설에도 옛날에는 발산이 부의 주산이었으나, 중바위 때문에 승려들의 무리가 운집할 것을 걱정하여 기린봉으로 대신하였다는 말이 있거니와 발산의 발이 본디 의발衣鉢의 발이 아니요, 중바위란 이름도 발鉢이란 대자對字가 생긴 뒤에 그 한

45 삼한 때 천신에게 올리던 제사를 맡은 제주(祭主)
46 푸른 산에 시리도록 차가운 물이 흐르다
47 면면히 이어온 뜻

자를 보고 덧붙인 것에 불과함을 알면 토지의 오랜 주인을 억지로 제쳐버린 일이 매우 우습다. 더욱 발산이라 중바위라는 통에 풍수객들이 호승예불혈⁴⁸胡僧禮佛穴이란 것이 있겠다 하여 머리를 마구 부딪치면서 와서 찾는다 함에는 허리가 아파 부러질밖에 없다.

오늘 일정의 목표가 되는 맞은편 모악산에는 밤 추위에 눈이 하얗게 와서 덮였다. 줄남생이처럼 조르르 엮드린 완산칠봉을 지나는 동안에도 모여드는 장꾼이 50인지 100인지, 그중에도 많은 것은 장작 팔러 오는 이인데 마소의 바리는 거의 없고, 대개는 지게에 발채를 엮고 세 줄로 쌓아올렸음이 눈에 서툴며, 종잇짐과 청죽⁴⁹靑竹짐도 경성드뭇⁴⁹ 들어오니 아닌 게 아니라 지방색을 드러낸 것이 얼마쯤 반가운 생각이 난다. 나뭇짐이 이렇게 많은 것은 우리가 가는 쪽이 전주에서 산협부이기 때문이다. 돌절구를 파서 지고 들어오는 것도 한 둘이 아니었다.

꽃밭정이를 지나다가 길가에 벌려놓은 엿이 하도 먹음직하기에 사 먹으며 보니, 엽전꾸러미가 의젓이 돈 무더기에 놓여 있다. 아직 전주도 그런가 하여, 당연할 일이건만 껍 의외로 생각된다. 다섯 냇이 일 전이라니 쇠값에 지나지 않을까 하였다. 흰 엿 무슨 엿 할 것 없이 보기에나 먹기에나 껍 만만한 것이 전라도 엿이요, 들깨쌈 콩쌈 따위 종류도 서울보다 많다. 콩나물이 연하고, 엿이 말쑥한 것은 아무래도 전라도의 특장⁵⁰特長이라 아니할 수 없다.

길을 닦기 전에는 꽤 수월치 않았을 듯한 문정리의 긴 등성이를 오르락내리락하는데, 마지막에 있는 낙가재를 넘어서니 세내⁵⁰호르는 큰 벌판이 시원하게 눈앞에 전개된다. 이 근처의 면 이름은 난전⁵⁰亂田이라 하니, 덩불이란 난자지만 매우 기이하고 궁벽한 지명이다. 한두 그루씩 가끔 만나는 길머리의 수양버들은 물오른 실이 축축 늘어지고, 푸른 잎사귀가 뽕족뽕족 눈을 터서, 바람이야 차거니

48 승려가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모습의 명당

49 많은 수효가 등성등성 흩어져 있는 모양

50 삼천(三川)

않거나 춘색의 선구는 오직 내로라고 한껏 자부하는 것 같다.

둔전⁵¹ 솟막⁵² 앞에서 누추한 마누라 하나가 깨끗한 아낙네 둘을 붙들고, 미운 며느리 홍보는 것인지 화가 꼭지까지 나서 긴긴 하소연을 하는데, 나이 먹은 아낙네에게 “아씨 아씨” 하는 것이 몹시 귀에 걸린다. 아씨란 것이 이 근처에서는 여자에 대한 일반적 존칭으로 정히 서울말의 마님에 해당하게 쓰는 줄이야 누가 알았어야지. 최고 경의를 표하자면 ‘큰 아씨’ 라고 한다 하며, 처녀는 ‘색시’, 신부는 ‘아기씨’ 라 하여 서울하고는 같은 말도 표현하는 범위는 얼마쯤 다름을 본다. 아씨의 이러한 용례에는 마치 흥노 고어 알지⁵³ 그대로의 남아 있는 뜻을 얼마쯤 징험⁵⁴할 듯하다.

가만히 주의해서 듣노라니 재미있는 말이 꽤 많이 있다. 시골 외 입쟁이인 듯한 나그네가 입꼬리에 침을 버걱거리면서 남을 헐어서 욕설을 하는 말 가운데, “그런 녀 떨어진 놈이 어디 있어!” 하는 것이 었다. 상용어지만 서울 같으면 얼빠진 놈, 정신없는 놈이라 할 경우에 녀이 떨어짐으로 일컬음이 아닌 게 아니라 옛 뜻을 잘 전한 것 같고, 겸하여 우리 선조의 영혼관의 일면을 엿볼 듯도 하여 크게 주의를 끈다.

전주부 안에서부터 여자의 출입이 파라솔 한 개만 볼모로 들면 심히 자유로운 듯함에 비교적 빨리 달라졌음에 놀랐더니, 수십 리를 촌으로 나와서도 젊고 얹전한 아낙네들이 파라솔을 옆구리에 가로끼고, 논길 밭길로 오고감을 가끔 보겠다. 말로 듣던 ‘무름개’란 것은 그림자도 볼 수 없이 되었다. 대개 우리 부녀자의 파라솔이 쓰개 대용의 특수한 의미를 가졌음은 본래부터 아는 바이거니와 나아가 외출의 호신부같이 씌우기까지 하는 것은 전주 와서야 깨달았다.

석전의 옛 벗이요, 근처의 올곧은 선비라 하기에 좀 돌아가는 길이지만 와동⁵⁵이란 데를 찾아 들어가 심농⁵⁵ 조기석⁵⁵ 씨를

51 채소밭

52 주막(酒幕)의 옛말

53 여자, 처, 황후 등을 의미하는 흥노어

54 어떤 징조를 경험함

55 전북 김제 출신의 한학자·서화가. 1879년(고종 16)~1935년

찾았다. 이석정李石亭⁵⁶과 아울러 '석석벽죽石石碧竹'⁵⁷이란 말을 듣던 벽하碧下 주승周昇⁵⁸ 씨의 영윤인데, 가학을 잘 계승하여 서예로나 대나무 그림으로나 그리 그 아버지에 떨어지지 아니함은 반가운 일이었다.

벽하의 특장인 해서의 놀라운 수완을 나타낸 「난정서蘭亭序」, 「낙신부洛神賦」, 「가묘비家廟碑」 등의 첩에서는 공력이 보이는 그 글씨의 가름함에도 감탄하였거니와 사辭와 필筆이 다 정묘한 향수옹香壽翁⁵⁹의 제발題跋⁶⁰이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랐다.

서운하건만 바쁜 걸음에 작별하고 작은 내 하나를 건너 잘록한 산허리를 타고서 마루개 동네를 지나니 다시 큰 길이 되었다. 앞 냇줄기로 드문드문 놓인 물레방아의 시적인 광경을 둘러보면서 한참 나아가다가, 오른쪽으로 산 뿌다구니를 만나 좁은 길로 갈려 들어가는 것이 모악산 길의 초입이다. 바로 현란하게 채색한 이씨 효자의 정려를 보는 학내 동네로 해서, 산간 소로로 구불구불 북쪽으로 올라간다.

얼마 가면 모악산 가슴에 달린 수왕대 암자가 바라보이는데, 좀 더 올라가다가 산기슭 정면에 기와지붕이 흰하게 보이는 것이 대원사大院寺였다. 문득 와폭臥瀑⁶¹이 나오고, 문득 맑은 못이 드러나서, 골이 깊어지는 대로 층층이 굽이진 계곡 돌의 풍취가 자못 버리기 어려움을 깨닫겠다. 한참 주렸던 눈이라 돌들 사이로 흐르는 물이 하도 반갑기에 비슷한 운의韻意⁶²를 따라 저것은 분설담噴雪潭, 이것은 진주담眞珠潭 하면서 보며 올라가니 재미가 좀 더 하는 듯하다.

외진 산중에 많은 민가가 한 마을을 이룬 것에 놀라면서, 그 뒤로 나서니 바로 절이었다. 대원사라 하면 꽤 오랜 역사가 있기도 할 뿐 아니라, 진묵대사震默大師⁶³가 한참 살림하던 곳이라 하여, 작은 분수로 크게 들린 절이다. 대웅전에는 미타삼존이 크기도 하려니와 상

56 김제 출생의 서화가 이정직(李定稷). 석정은 그의 호이다. 1841년(헌종 7)~1910년

57 석정 이정직은 암석, 벽하 조주승은 대나무에 뛰어남을 일컫는 말

58 김제 출신의 서화가. 1854년(철종 5)~1903년(광무 7)

59 조선 후기의 서화가 정학교(丁學敎). 향수는 그의 호이다. 전·예·행·초에 모두 능했으며 광화문의 편액은 그가 쓴 것으로 알려졌다. 1832년(순조 32)~1914년

60 제사(題辭)와 발문(跋文)

61 경사가 완만한 폭포

62 높고 아름다운 품격을 갖춘 뜻

63 조선 후기 김제시 만경읍 출신의 승려. 술한 기행과 이적이 설화로 전해온다. 1562년(명종 17)~1633년(인조 11)



호가 펍 좋으니 대개 상당한 내력이 있을 듯하며, 그 좌우측 명부전의 시왕상도 비교적 어울린 제작임을 보면 본래는 상당한 명찰이었을 듯하다. 대웅전의 왼쪽에는 진묵의 영당이 있고, 뒷등성이에는 이끼가 고색을 드리운 5층 석탑이 있는데, 무너졌던 것을 다시 모은 이가 꽤 덩벙꾼인 양하여 층현層軒을 반이나 거꾸로 엮었음은 펍 우스웠다.

앞으로 나와서 동구 밖 맞은편의 향가산과 그 밑 동네를 개미집같이 한참 내려다보다가 지은 지 팔구 년쯤 된 염불당에서 하룻밤 잠 자리를 기대는 인연을 맺기로 하였다.

모악산 대원사 670년(신라 문무왕 10)에 보덕화상의 제자인 일승·심정·대원이 창건한 절로 지금은 금산사의 말사이다.